투데이 칼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한 길은

김 자 연
전주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학대의심내용으로 신고접수가 되고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이 된 가정은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가 이관이 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점은 사례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로 사례관단이 되어 서비스가 개입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불편한 감정과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보여 비협조적인 사례관리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피해아동의 안전과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학대피해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해 양육기술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가족재결합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위험요인이 감소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가족구성원의 변화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2021년 8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안방안에 대한 발표가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써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제도와 정책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맞춰져 있어 지속적인 사례관리 관점에서 보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정책발표 안에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당 사례관리 수는 평균 62건이며, 이는 선진국에서 1인당 12~27건 사례관리를 담당하는것과 비교했을 때 3~4배 많은 수준이다. 또한 2021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1.08 발표한 학대예방기획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3.3년이며, 2021년 7월 보건복지포럼에서 발표한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 사유 1순위는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라고 한다. 학대행위자들의 반복되는 민원과 거부적인 태도를 응대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1.08.19.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동학대 초기대응 중심의 대책 마련에 집중 되어 있고 학대 판단 및 조치 이후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이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강화 부분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사례관리가 개입이 되고 있으나,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예방과 가족구성원의 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다. 2018년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시작으로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실천기술과 프로그램 등은 부재하다.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모형 개발이 도입된다면 질 높은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의 사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를 근거로 조사 할 수 있고 질문 범위가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를 근거로 개입하고 있으나, 사례관리에 필히 참여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근거가 강화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의 보호를 위해 힘쓰는 상담원들이 현장에서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지속가능한 업무환경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 아동호보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국가적인 차원의 실천기술,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자전거 모시기 좋은 날씨군"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벨링햄에 내린 눈으로 더는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된 한 남성이 자전거를 들고 눈 속을 헤집고 있다.

베네수엘라서 '무고한 아이들 순교' 기념 축제 열려

2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우카파에서 '무고한 아이들 순교' 축일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주변을 경비하는 한 남성이 장난스럽게 질서를 유지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매년 12월 28일 열리는, 200년이 넘은 이 전통 행사에서 주민들은 헌 옷을 입고 얼굴은 검게, 혀는 붉게 칠하고 이날을 기념한다

사 설

국가 경쟁력과 학벌주의

학벌주의가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병폐라는 지적이 많다. 학벌주의는 신라의 골품제도가 성골과 진골을 따지는 것과 같다. 물론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도 문벌 귀족이나 권문세족과 같은 족벌사회가 있었다.

출신 학교 위주의 생각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다. 학벌주의는 불평등을 조장한다. 전공과 업무와 연결되는 학구의 실적을 따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치여 있는 것은 학벌주의 때문이다.

요즘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서부터 대학 입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자녀를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학원 과외를 부추기고, 너도나도 덩달아 과외 시키지 않으면 뒤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비싸더라도 족집게 과외를 받아서 기어이 명문대에 넣고 싶다. 그래서 강남으로 몰리고, 과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간판과 경쟁은 자유경제사회에서는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는다는 점이다. 이런 풍토에서는 창의적 인재가 길러질 수 없다.

학벌주의는 특기와 적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학벌만을 추구하는 빗나간 교육열을 확대 재생산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학벌주의는 대학의 서열을 강요한다.

서열이 매겨진 대학은, 중등교육을 전인 교육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킨다. 이미 오래 전에 학생은 전인 성장의 꿈을 접었다.

입시를 지상 목표로 하는 점수 획득 기계로 전락했다. 능력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 가능하다.

명문대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벌주의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 경제적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은 자녀들의 진학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시내버스 정류장 탄소 발열의자

전북 도내 시내버스 정류장에 '탄소발열의자'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는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탄소발열의자'에 앉으면 무척 따뜻하다. 안방 아랫목에 앉은 기분으로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해 주기 때문이다.

전주 일부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현재 '탄소발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버스 승강장에서 탄소발열의자로 추위를 녹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시내 1호 광장을 비롯한 버스승강장 5개소에 탄소발열의자를 시범 설치한 결과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 뒤 추가로 버스승강장 20개소에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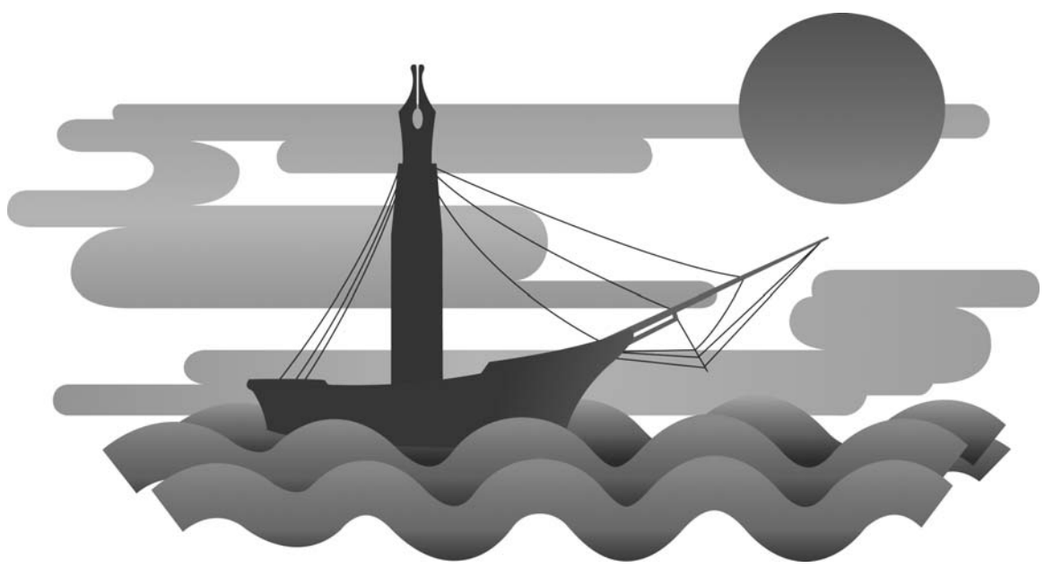
탄소발열의자는 탄소 소재의 열선을 의자 내부에 심어, 전기를 통하면 바로 따뜻해지게 만든 것이다. 교통 약자인 시내버스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로 이뤄졌다.

탄소발열의자는 열 전도율이 높은 탄소 섬유를 사용해 온열 효과를 내는 의자다. 온도 센서가 부착돼 야외 온도 15도 이하에서만 작동된다. 누전 발생과 감전의 우려가 없고, 원적외선이 방출돼 따뜻한 느낌이 배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탄소발열의자는 전자파가 없고 원적외선 방출로 피로감을 해소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차츰 확대 설치가 요구된다. 전주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탄소발열의자는 현재 전북을 제외한 전국 33개 자치단체 385곳 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다. 사업성이 무궁무진한 탄소산업이 전주를 기점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이다. 겨울철 추위에 노출된 시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탄소발열의자 설치를 늘리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